



남부고시온라인 나래국어 이유진 2014 국외직 9급 국어 해설

문 1.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접두사가 아닌 것은?1)

- ① 딱그릇에 찬밥이지만 진수성찬이 따로 없네.
- ② 올해 심을 씨감자가 비를 맞고 다 썩어버렸어요.
- ③ 최근 일본산 찰다랑어의 가격이 매우 하락하였다.
- ④ 처남이 우리 집으로 이사 오면서 군식구가 늘었어.
- ⑤ 피지도 못한 꽃들을 깃뺏아버린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문 2. <보기>의 글에서 () 안에 들어갈 단어의 순서로 적절한 것은?2)

<보기>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A)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B)은/는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C)의 힘이다. (C)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D)도 아니요, (E)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 ① 經濟力 - 富力 - 武力 - 文化 - 強力
- ② 經濟力 - 強力 - 武力 - 文化 - 富力
- ③ 富力 - 文化 - 強力 - 武力 - 經濟力
- ④ 富力 - 強力 - 文化 - 武力 - 經濟力
- ⑤ 富力 - 武力 - 經濟力 - 文化 - 強力

문 3. 다음 중 '[발음]-표기'가 잘못 연결된 것은?3)

- ① [눈꼽] - 눈곱 ② [범씩] - 범석
- ③ [썩뚝] - 썩뚝 ④ [잔뜩] - 잔뜩
- ⑤ [멀쩡] - 멀쩡

문 4. 다음의 밑줄 친 단어 중 품사가 다른 하나는?4)

- ① 그는 갇은 양념을 넣어 음식을 만들었다.
- ②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지?
- ③ 그는 현 신문지를 바닥에 깔았다.
- ④ 그는 외딴 마을에서 혼자 살았다.
- ⑤ 그는 긴 세월을 타향에서 보냈다.

문 5. 다음 중 자연스러운 문장은?5)

- ① 담당 의사의 조언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보라고 권유했다.
- ② 오늘 점심에 빵과 우유를 하나씩 사서 마셨다.
- ③ 내 생각은 네가 먼저 사과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 ④ 이번 조치는 고객의 건강과 쾌적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 ⑤ 그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눈만 뜨면 도서관에 간다.

문 6.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바르게 적은 것은?6)

- ① 집현전 Jipyeonjeon
- ② 영등포 Yeongdeungpho
- ③ 백록담 Baengnokdam
- ④ 여의도 Yeouido
- ⑤ 신문로 Simmunno

문 7. 밑줄 친 부분이 바르게 쓰이지 않은 것은?7)

- ① 그는 아들에게 학비와 용돈을 부쳤다.
- ② 부쳐 먹을 내 땅 한 평 없다.
- ③ 한창 커 가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부치고 사는 것이 큰 낙이다.
- ④ 그 일은 이제 기력이 부쳐 할 수 없다.
- ⑤ 그들은 여행 계획을 비밀에 부쳤다.

문 8. 밑줄 친 한자 성어의 쓰임이 바르지 않은 것은?8)

- ① 아무리 형제 사이가 견토지쟁(犬兎之爭)이라 해도 혈육이기에 서로 도와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② 그는 피나는 노력의 결과 기타 연주 실력이 괄목상대(刮目相對)했다.
- ③ 시대가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각주구검(刻舟求劍)과 같은 태도를 지니고 있다.
- ④ 그는 제 판에는 집안의 가난을 절치부심(切齒腐心)한 모양이다.
- 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기망양(多岐亡羊)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문 9. 다음 중 사이시옷 표기가 올바르지 않은 것은?9)

- ① 등곳길
- ② 전셋방
- ③ 대폿값
- ④ 선짓국
- ⑤ 제삿날

문 10.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맞춤법에 맞지 않은 것은?10)

- ① 울적한 마음을 달래려고 산책을 나갔다.
- ② 늦깎이로 시작한 연기 생활이었던 만큼 그 길이 순탄치 않았다.
- ③ 밤이 깊어갈수록 새벽이 가까워진다.
- ④ 몸을 나지막히 눕혀 날아오는 화살을 피했다.
- ⑤ 코는 뚫히고 입은 뿔죽해서 볼품이 없다.

문 11.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11)

- ① 객지에서 고생하는 그를 생각하니 참 안되었다.
- ② 내가 온 지도 닷새나 되었다.
- ③ 이제까지 배운 대로 해라.
- ④ 두 달만에 비가 왔다.
- ⑤ 배는 먹은 만큼 부르게 되어 있다.

문 12. ㉠과 가장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12)

아닌 게 아니라 날이라도 좀 밝은 다음이었으면 좋았겠는데, 날이 밝기를 기다려 동네를 나서는 건 노인이나 나나 생각을 았았다. 그나마 그 어둠을 ㉠타고 마을을 나서는 것이 노인이 나 나나 마음이 편했다.

- ① 철호 가족의 가슴 아픈 사연이 방송을 타면서 수많은 독자들이 성금을 보내 왔다.
- ② 원숭이는 야자열매를 따기 위해 나무를 탔다.
- ③ 우리는 함양에서 출발하여 지리산 줄기를 타고 남원으로 내려가려 하였다.
- ④ 꽃가루는 바람을 타고 이곳저곳으로 퍼진다.
- ⑤ 소매치기는 사람들이 복닥거리는 틈을 타 여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훔쳤다.

문 13. 다음 글에 <보기>의 문장을 첨가하고자 할 때 가장 알맞은 곳은?13)

세계화와 정보화로 대표되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기호, 이미지, 상징들이 결합된 상품들의 홍수 속에서, 그리고 진실과 경계를 구분할 수 없는 정보와 이미지의 바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 이러한 사회적 조건들은 개인들의 정체성 형성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 절약, 검소, 협동, 양보, 배려, 공생 등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은 이제 쾌락, 소비, 개인적 만족과 같은 새로운 가치와 규범들로 대체되고 있다. ㉢ 그래서 개인적 경험의 장이 넓어지는 만큼 역설적으로 사람들 간의 공유된 경험과 의사소통의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 파편화된 경험 속에서 사람들이 세계에 대한 '인식적 지도'를 그리기란 더 이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

<보기>

개인들의 다양한 삶과 경험은 사고와 행위의 기준들을 다양화했으며, 이로 인해 전통적인 정체성은 해체되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문 14.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14)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고 유무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하고, 이는 콘텐츠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를 일으켰다. 이러한 변화는 미디어 환경과 콘텐츠의 제작기술이 디지털화하면서 더욱 가속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미디어와 콘텐츠의 디지털화는 기존 매스미디어의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만이 아니라 콘텐츠 창작자 혹은 콘텐츠 제공자가 일반 대중과 쌍방향적으로 교류, 소통하게 하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고, 이것은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들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온라인게임, 디지털애니메이션, 캐릭터, 인터넷콘텐츠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문화콘텐츠들이 이에 속하며, 기존의 영화, TV방송물의 문화콘텐츠들도 대중들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반응과 평가에 의해 그 성패가 좌우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인터넷이 발달한 미디어 환경에서 대중이 직접적으로 창작자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창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매체와 논의의 장이 무한히 확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에선 인터넷 등에서 인기를 얻은 일반 대중의 창작물들이 메이저 프로젝트로 발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① 기존의 문화콘텐츠들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
- ② 미디어와 콘텐츠의 디지털화는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들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였다.
- ③ 온라인게임, 디지털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은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들이다.
- ④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콘텐츠의 형식과 내용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 ⑤ 콘텐츠 창작자와 대중이 쌍방향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문 15. 다음 시조의 화자와 유사한 태도를 보이는 작품은?15)

十年을 經營하여 草廬 三間 지어 내니
나 혼 간 들 혼 간에 淸風 혼 간 맞겨 두고
江山은 들일 디 업스니 돌려 두고 보리라

- ① 말 업슨 靑山이오 熊 업슨 流水 | 로다
갑 업슨 淸風과 님자 업슨 明月이라
이 中에 病 업슨 내 몸이 分別 업시 늙그리라
- ② 菊花는 무슨 일노 三月春風 다 바리고
落木寒天에 네 홀노 푸엿는다
아마도 傲霜孤節은 너뿐인가 호노라
- ③ ㅁ음이 어련 後 | 니 호는 일이 다 어리다
萬重雲山에 어니 님 오리마는
지는 님 부는 바람에 형혀 권가 호노라
- ④ 간밤의 부던 바람에 눈서리 치단 말가
落落長松이 다 기우러 가노미라
호물며 못다 핀 곳이야 닐려 므슴 호리오
- ⑤ 靑草 우거진 골에 자는다 누엇는다
紅顏을 어디 두고 白骨만 무쳤논이
쉴 자바 勸호리 업스니 그를 슬허호노라

문 16. 다음 글을 소재로 하여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16)

정(鄭)나라의 대부(大夫) 자산(子産)은 어진 재상으로 이름이 나 있었다. 그가 진수와 유수를 지나다가 백성들이 물을 건너느라고 고생하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겨 자기의 수레에 함께 타고 건너게 해주었다. 이는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그러나 맹자는 자산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하며 정치를 할 줄 모른다고 비판하였다. “자산은 은혜롭기는 하나 정치를 할 줄 모른다. 11월에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작은 다리를 놓고, 12월에 수레가 지나 다닐 수 있는 큰 다리를 놓으면 백성들이 물을 건너는 데 근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군자가 정치를 바르게만 한다면 길을 가면서 오가는 사람들을 좌우로 물리치고 다녀도 괜찮을 것이다.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건네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사람마다 다 기쁘게 해주려고 한다면 날마다 그 일만 하여도 모자랄 것이다.”

「맹자(孟子)」, <이루편(離婁篇) 下>

- ①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 ② 정치인은 사사로운 인정에 이끌리면 안 된다.
- ③ 정치인이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 ④ 정치인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정치인은 작은 일부터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문 17. 다음 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7)

이생도 처연해져 한탄하기를 마지않으며 말했다.
“차라리 남자와 함께 구천에 갈지언정 어찌 하릴없이 홀로 남은 생을 보전하겠소? 지난번에 난을 겪은 뒤 친척과 종들이 각각 어지럽게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골은 어지러이 들판에 굴러다닐 때, 남자가 아니었다면 누가 제사 지내고 묻어주었겠는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살아서는 예로써 섬기고 죽어서는 예로써 장사지낸다.’라고 했는데 남자는 이를 모두 다 실천하였으니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운 사람ियो. 감격스러움은 한량없고 자괴감을 이길 수 없소. 인간 세상에 더 머물렀다 백 년 뒤에 함께 묻힙시다.”

여자가 말했다.

“낭군님의 수명은 아직 남아 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 명부에 올라 있으니 더 오래 보지 못합니다. 만약 인간 세상에 연연해하면 명을 어기는 것이니 나에게 죄를 줄 뿐 아니라 그대에게도 누가 미칠 것입니다. 저의 유골이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은혜를 베풀어주시려거든 바람과 햇빛에 드러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다가 여자가 말했다.

“낭군님, 잘 계십시오.”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지더니 자취가 없어졌다.

이생이 유골을 수습하여 부모님 묘 옆에 묻어주었다. 장례를 마치고 나서 이생 또한 그리움 때문에 병이 들어 몇 달 뒤에 죽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며 그 의리를 사모하지 않음이 없었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

- ① 두 사람의 비극적 사랑과 비애가 드러나 있다.
- ② 유교 사상에서 강조하는 덕목이 제시되어 있다.
- ③ 인물의 행적과 품성을 압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사건의 전개에 비현실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
- ⑤ 일련의 사건을 통해 주인공의 고독이 해소되고 있다.

문 18. 다음 글의 서술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8)

‘중독’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addict’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떤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매달린’ 또는 ‘속박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였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속박되어 있는 중독들-특히 화학적 중독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의 수는 매년 얼마나 될까?

니코틴은 고도로 중독성이 있는 물질이며 그것에 중독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흡연으로부터 야기되는 각종 질환에 의해 사망하는 미국인은 매년 50만 명에 달한다. 심지어 간접흡연으로부터 야기되는 질환에 의한 미국 내 사망자 수도 5만 명이나 된다.

알코올을 역시 사람을 죽이는 데에 일가견이 있는 능숙한 킬러이다. 비록 알코올의 섭취에 일말의 장점이 있다고 평가되긴 하지만, 알코올 섭취로 인한 폐해는 이를 압도한다.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이 알코올 남용으로 야기된 질환으로 사망한다. 음주 운전으로 비롯된 교통사고 사망자의 수도 무시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 50만 명이 알코올 때문에 사망하며, 알코올 중독자의 수만도 100만 명 단위에 달한다. 이 외 다른 중독성 정신 변성 약물들(코카인, 헤로인, 아편 등등)의 전 세계적 희생자 수는 매년 대략 100만 명 이상 발생한다.

모든 중독은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며, 그 대가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대가를 야기하는 중독성 약물을 제조하고, 판매와 배포를 촉진하는 사람들은 양심에 커다란 부담을 져야만 마땅할 것이다.

- 문 19. ㉠과 ㉡에 가장 알맞은 접속어는?19)
- 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근거의 신빙성을 얻고 있다.
 - ② 의인화를 통해 설명 대상의 위험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③ 단어의 어원을 밝힘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④ 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들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다.
 - ⑤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언어의 기능은 의사소통이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주위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게 하는 것이 언어의 주요 기능이며, 실상 언어 발생의 동기와 목적이 의사소통의 필요성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인류문화가 아주 원시적이었던 선사 시대에는 단순한 의사소통만으로 언어가 그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었다. (㉠) 인간의 사회구조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인류문화가 발달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청자와의 직접적인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화자의 음성이 미치지 못하는 거리나 시간에 처해 있는 보이지 않는 청자와 의사소통을 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부족국가가 형성되고, 정치체제가 성립되면서 지방행정관에게 명령을 전달할 필요성도 생겼고, 자기가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을 후손에게 전해 주고 싶은 마음도 생겼고, 보이지 않는 독자를 위해 시나 소설을 짓고 싶은 마음도 생기기도 하였다. 전화도 녹음기도 비디오도 없었던 시절, 발성하자마자 한 리(里)도 못 가 자취 없이 사라져 버리는 음성은 간접적인 의사소통에는 전혀 부적당한 매개체였다. (㉡) 시간과 공간의 장애를 초월해서 의사를 전할 수 있는 언어의 매개체를 모색하였고, 그 결과 문자가 나오게 되었다.

- | | | | |
|-------------|--------------|---|---|
| ㉠ | ㉡ | ㉠ | ㉡ |
| ① 그런데 - 그리고 | ② 그러나 - 그리하여 | | |
| ③ 그런데 - 하지만 | ④ 그리고 - 그래서 | | |
| ⑤ 그러나 - 그리고 | | | |

문 20. 다음은 어떤 글에 관한 개요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

주제: 바람직한 노사관계

I. 서론: (㉠)

II. 본론

1. 노사 분쟁의 원인

(가) 노사 간의 이해 부족

(나) 분배의 불공정성

2.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방안

(가) 노사 간의 상호 신뢰 구축

(나) 경영에 근로자의 참여 기회 부여

(다) (㉡)

III. 결론: 상호 이해와 공정한 분배에 바탕을 둔 노사관계의 정립

- ① ㉠ 노사관계의 의미
㉡ 경영 성과에 따른 공정한 분배 보장
- ② ㉠ 바람직한 근로자상과 기업가상
㉡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뢰 구축
- ③ ㉠ 기업의 활성화 방안
㉡ 경영 결과에 따른 성과급 보장
- ④ ㉠ 기업의 활성화 방안
㉡ 근로자의 사기 진작
- ⑤ ㉠ 노사관계와 기업의 윤리
㉡ 근로자와 사용자의 책임 분담

1) ② '썩감자'의 '썩'는 어근에 해당한다. 따라서 '썩감자'는 합성어이다.

[오답해설]

- ① 막-: '거친', '품질이 낮은' 뜻을 더하는 접두사.
- ③ 참-: '진짜' 또는 '진실하고 올바른' 뜻을 더하는 접두사.
- ④ 군-: '가외로 더한', '덧붙은' 뜻을 더하는 접두사.
- ⑤ 짓-: '마구', '함부로', '몹시' 뜻을 더하는 접두사.

2) ④ 지문에 따르면 C는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는 것으로 '문화'에 해당한다. C의 순서에 '문화(文化)'가 위치해 있는 것은 ④뿐이다.
- 浮力(부력), 強力(강력), 文化(문화), 武力(무력), 經濟力(경제력)

3) ③ 한글 맞춤법 3장 1절 5항에 따르면, 'ㄱ, ㄴ'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썩썩'은 [썩썩]으로 발음되나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므로, '썩썩'이라 표기하는 것이 옳다.

[오답해설]

- ① '눈곱'은 [눈곱]으로 발음하지만 동물의 지방을 뜻하는 '곱'의 어원을 살려 '눈 곱'으로 적는다.
- ② [법색]으로 발음되지만, ③과 같은 원리로 '법색'이라 적는다.
- ④, ⑤ 된소리로 발음될 뚜렷한 이유가 없어 된소리가 나는 경우 된소리로 적는다.

4) ⑤ '긴'은 형용사 '길다'를 관형사형으로 활용한 형태이다.

[오답해설]

- 나머지 단어는 모두 관형사이다.
- ① 갓은: 골고루 다 갓춘, 또는 여러 가지의.
- ② 다른: 당장 문제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의.
- ③ 현: 오래되어 성하지 아니하고 낮은
- ④ 외딴: 외따로 떨어져 있는

5) ⑤

[오답해설]

- ① '담당 의사의 조언'이 '권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담당 의사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보라고 권유했다.'로 고쳐야 한다.
- ② '마셨다'의 목적어로 '뺑'은 부적절하므로, '뺑을 먹고 우유를 마셨다.'로 고친다.
- ③ '내 생각은 ~ 생각한다'는 중복이므로 '나는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로 고쳐야 한다.
- ④ '고객의 건강'을 '조성'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이번 조치는 고객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로 고쳐야 한다.

6) ③ 백록담[백록담]: Baengnokdam

[오답해설]

- ① Jiphyenjeon: [지편전]으로 발음되지만 체언에서 자음 축약은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② Yeongdeungpo: '포'는 'po'이다.
- ④ Yeoido: '니'는 'i'로 발음나는 경우가 있어도 'ui'로 표기한다.
- ⑤ Sinmunno: '신문로'는 [신문노]로 발음된다.

7) ③ '한창 커 가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붙이고 사는 것이 큰 낙이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해설]

- ①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방에게 보낸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② '논밭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④ '모자라거나 미치지 못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⑤ '어떤 일을 거론하거나 문제 삼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8) ①

犬兎之爭(견토지쟁): 개와 토끼의 다툼이라는 말로, '쓸데없는 다툼'이라는 뜻.
犬猿之間(견원지간): 개와 원숭이처럼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이

[오답해설]

- ② 刮目相對(관목상대):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본다는 뜻으로,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늘을 이르는 말
- ③ 刻舟求劍(각주구검): 율령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
- ④ 切齒腐心(철치부심):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 ⑤ 多岐亡羊(다기망양): 갈림길이 많아 잃어버린 양을 찾지 못한다는 뜻으로, 두루 섭렵하기만 하고 전공하는 바가 없어 끝내 성취하지 못함을 이르는 말.

9) ② '전세방'은 한자어 '전세(傳貰)'와 한자어 '방(房)'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사 이시옷을 넣지 않는다.

[오답해설]

- ① 등곳길: 한자어(登校)+고유어
- ③ 대꽃값: 한자어(代表)+고유어
- ④ 선짓국: 고유어+고유어
- ⑤ 제삿날: 한자어(祭祀)+고유어

10) ④ 부사의 끝 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므로 '나지막이'로 고쳐야 한다.

11) ④ 기간 뒤의 의존명사 '만'은 띄어 쓴다. '두 달 만에'로 고쳐야 한다.

[오답해설]

- ① 제시된 예문의 '안되다'는 '쉽잖거나 가없이 마음이 언짢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므로 붙여 쓴다.
- ②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지'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③⑤ 용언의 관형형의 수식을 받은 '대로'와 만큼'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12) ⑤ ㉠ 타고는 '어떤 조건이나 시간, 기회 등을 이용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와 유사한 의미는 복적거리리는 상황을 이용한다는 ⑤'타고'이다.

[오답해설]

- ①④ '바람이나 물결, 전파 따위에 실려 퍼지다.'의 의미이다.
- ②③ '도로, 줄, 산, 나무, 바위 따위를 밟고 오르거나 그것을 따라 지나가다.'의 의미이다.

13) ② <보기>는 개인들의 다양한 삶과 경험이 사고와 행위의 기준들을 다양화하여 전통적인 정체성이 해체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에 와서 ㉡ 앞의 '개인들의 정체성 형성'과 ㉢ 뒤의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이 대체되고 있다는 사실의 인과관계를 연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14) ① 지문의 내용은 콘텐츠의 형식과 내용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문화콘텐츠들이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중들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반응과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① 송순의 시조로, 주제는 '자연 속에서 사는 소박한 삶'이다. 가장 유사한 시조는 자연에서 욕심없이 늙겠다는 내용의 성혼의 시조이다.

[오답해설]

- ② 이정보의 시조, 선비의 높은 지조를 국화에 비유
- ③ 서경덕의 시조, 사랑하는 이에 대한 그리움
- ④ 유응부의 시조, 계유정난을 배경으로 한 우국충절
- ⑤ 임제의 시조, 죽은 이(황건이)에 대한 그리움, 인생 무상

16) ④ 백성을 사랑한 자산의 행위보다 근본적으로 백성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낫다는 주제를 담고 있다.

17) ⑤ 이생규장전은 죽은 아내와 사랑을 나누는 비극적이고 비현실적인 사랑을 보여준다. 아내의 효성을 다루는 부분이 있으며 여기서 아내의 행적과 품성을 암묵적으로 서술하였다. 하지만 결국 다시 이별하게 되면서 고독의 해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8) ④

[오답해설]

- ① 둘째, 셋째 문단에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근거의 신빙성을 얻고 있다.
- ② '알코올'을 '사람을 죽이는 데에 일가견이 있는 능숙한 킬러'라고 의인화하여 설명 대상의 위험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③ 첫째 문단에서 단어의 어원을 밝힘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⑤ 첫째 문단 마지막 문장의 질문에 스스로 답하는 방식을 통해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19) ② ㉠의 앞은 선사시대, ㉠의 뒤는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인류문화가 발달한 뒤의 변화를 보여주므로 역접의 '그러나'나 전환의 '그런데'가 와야 한다. ㉡의 앞은 음성이 간접적 의사소통에 부적당하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 뒤에는 간접적 의사소통을 위해 문자가 발달되게 되었다는 내용이므로 ㉢에는 인과를 이어주는 '그래서'나 '그리하여'가 가능하다. 이를 모두 충족한 것은 ②이다.

20) ① 서론에서는 '노사관계의 의미'를 고찰하고 본론 2.에서는 분쟁 원인에 따른 방안으로 '경영 성과에 따른 공정한 분배 보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다.